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탄절 후 제2주 】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15(통55). 하나님의 크신 사랑 .....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아침에 청과 신앙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 푸른 언덕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은 결코 혼자 갈 수 없는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담쟁이 이파리들이 손에 손 맞잡고 벽을 오르듯 우리들도 수많은 난관들을 더불어 함께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주님, 희망의 새해가 밝았지만 이 세상 곳곳에서는 여전히 고통의 신음 소리와 걱정에 찬 한숨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절망 속에서 허덕이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모든 희망과 새로움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으로 인해 온갖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밝은 빛을 보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고전10:13 .....
♠ 교 독 문 .....	93. 새해(1) .....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
대표기도 .....	장영숙 전도사
응 답 송 .....	찬양대
찬 송 .....	212(통347). 겸손히 주를 섬길 때 .....
성경봉독 .....	전4:9-12 .....
찬 양 .....	찬양대
말 씬 .....	더불어 걷는 길 .....
거듭기도 .....	김기석 목사
	다함께

- 찬 송 ..... 특송 : 더불어 함께 ..... 말은이
- ♠ 봉 헌 .....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더불어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의 나라를 향해 함께 갈 수 있는 동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있기에 내가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너와 나, 우리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됨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올해도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임원 헌신 예배	1월 기도의 밤
말씀:양재성 목사, 기도:곽권희 권사	인도 : 김재흥 목사

<b>다음 주 예배위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손성현 전도사 김기석 목사	박인혁 선생 조병무 장로	인도자 문영혜 권사

<b>1월</b>	영접위원	방문성 이호원 김 극 정경례 고숙이 서정순
	헌금위원	구성실 김근종(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한 마음, 한 정신, 한 영혼

도시가 비인간화되고 또 반대로 비인간화를 조장하는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찾고 있다. 그들은 지치고, 외롭고, 무기력하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 더 절실히 공동체를 찾는다. 혼자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혼자 있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는 그들에게 신비로운 환대와 나눔의 장소로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공동체란 끔찍한 장소일 수도 있다. 그곳은 우리의 한계와 이기심을 스스로 자각하게 만드는 곳이다.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무능력, 정신적 장벽, 애정적이고 성적(性的)인 불안, 도저히 채울 길 없어 보이는 욕망, 불만과 질투심, 증오와 파괴적 충동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때에는 사랑하는 능력이 절대로 부족하며, 다른 사람들의 삶을 철저히 부정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만일 우리에게 사랑이 불가능해진다면 무엇이 남겠는가? 암흑과 절망, 고뇌밖에 없다. 사랑은 환상처럼 보이며 고독과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처럼 공동체 생활은 우리의 한계와 약점과 무지를 뼈저리게 들추어낸다.

뜻밖에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괴물들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을 쉽사리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 그에 대한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괴물들을 당장 부숴 버리려고 노력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감추고 시치미를 떼거나, 공동체 생활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관계에서 몸을 빼려 하거나, 괴물들이 우리 것이 아닌 타인의 것으로 생각하려 들거나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괴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것들을 밖으로 끌어내어 길들이는 법을 터득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해방을 향한 성장이다.

공동체는 우리의 능력과 더불어 한계도 받아들일 때 점차 해방의 자리로 굳어 간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공동체란 두려움이나 압박감 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장소

이다. 공동체 생활은 모든 구성원들의 상호 신뢰를 통해 심화된다.

이처럼 끈적스러운 이 장소는 생명과 성장의 자리도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서로를 진실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공동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좋기도 좋을시고, 아기자기한지고,  
형제들이 오순도순 한데 모여 사는 것  
향기 짙은 기름이 머리 위에서, 수염까지  
아론의 수염까지  
옷깃까지 내려서 흐름 같아라.”

(시편 133,1-2)

나는 아론의 수염에 대한 언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내가 수염을 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염을 타고 흐르는 기름이 공동체 생활만큼이나 놀라운 느낌을 갖는다면, 그것은 진정 경이로운 것임에 분명하다.

공동체 생활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의 거듭남이 시작될 수 있다. 우리는 바로 이 상처에서부터 탄생하게 된다.

## 라르슈 공동체

라르슈L'Arche는 정신 장애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물론 우리는 그들이 성장하여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독립성을 획득하도록 돕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 행동하기’에 앞서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정신적 장애를 지닌 자들에게는 모든 변두리 인생들이 그렇듯이 스스로가 배척받고, 무가치하며,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점이 특별한 고통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장애자들은 나날의 공동체 생활과 그 속에서 구현되지 않으면 안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자기가 가치 있다는 사실을, 자기도 사랑받고 있으며 대단히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 장 바니에, 「공동체와 성장」 중에서

## 더불어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었을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거칠고 모나게 살 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형상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드러내리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드러내리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이 천년 동안 계속 이어져온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나라 올 때까지 이어질 이 길

- 김형국, 조준모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 헌금영수기 ◇

### 십일조헌금:

조병무 송양진 김인걸 문영혜 예수김금경 종순선 정유하 윤영원 김일랑 이은관 윤행연 김홍준 수희호  
 이순정 안희홍 박홍고 재운배지인수 김관경 은관연 김홍준 수희호  
 홍순구 권미숙 임석철 배박장 해수인숙 김관경 은관연 김홍준 수희호  
 허호범 권미숙 임석철 배박장 해수인숙 김관경 은관연 김홍준 수희호

### 월정헌금:

고속이 김종철 고영애 박석희 조항미 박준희 이기분 서정순 왕수명  
 윤성중 김윤철 윤주원 최침김 최침김 최침김 최침김 최침김 최침김 최침김 최침김 최침김  
 김경수 배재영 이광수 최침김 최침김 최침김 최침김 최침김 최침김 최침김 최침김  
 이형순 배재영 이광수 최침김 최침김 최침김 최침김 최침김 최침김 최침김

### 감사헌금:

윤정덕 구성실 방문성 박혜경 박찬정 허정윤 김정길 최숙화 이은자  
 권명자 박병구 장혜숙 무명5

### 생일감사헌금:

김희우 최희영

### 녹색꿈 헌금:

박범희 임영선 이영순 무명1 (누계: 8,531,000원)

## ◇ 속회보고 ◇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침	침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박미영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고린도	이영란	윤정화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신년감사** :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2. **오후집회** : 오후 집회는 임원 헌신예배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택함 받은 일꾼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3. **봉헌** : 다음 주일 예배시에 금년도 십일조 및 월정 헌금을 작성해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로 작성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십시오.
4. **사경회** : 중구용산지방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경회가 1월 5일부터 8일까지 상동교회에서 열립니다. 12시부터 왕대일 교수가 진행하는 신명기 특강이 있습니다.
5. **결혼** : 김민정 씨가 허 철 씨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은 1월 10일 토요일 오후12시 20분 경남 합천 이화예식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6. **재무부 회의** : 다음 주일 오후 집회 후에 세미나실에서 재무부 회의가 있습니다.
7. **구역회** : 교회의 일년 살림 규모를 확정하는 구역회가 18일 오후 2시 지하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구역회원들은 보고서를 제출해주십시오.
8. **실천** : 새해 첫 주부터 성경읽기표를 사용해 성경읽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 식당 봉사 : 안디옥 속  
다음 주 식당 봉사 : 안디옥 속

설거지 도우미 : 곽상준 최경미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 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